

자영업자의 도약(Scale-up)을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취업자 5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한 생활고나 코로나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폐업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경쟁력 강화, 도약(Scale-up)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함.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10년 이상 사업 존속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일반사업자(27.44%), 면세사업자(18.75%)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였음. 자영업자들은 세무관리 및 홍보·마케팅에 대한 훈련 수요가 있으며, 훈련이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성장을 가능하게 할 자영업자들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게 하는 세밀한 직업훈련 제도와 정책 설계가 요청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 중 23.5%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지만, 직업훈련에 대한 의지나 참여도는 낮아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OECD(2024)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 비율(Self-employment rate)'은 23.5%로 조사 대상국 중 7번째이며, OECD 국가 중 경제 수준이 높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임
 - G7 중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자영업자 비율은 21.5%로 우리나라와 비슷했고, 영국(15.3%·2019년 영국 통계청 기준), 프랑스(13.1%), 일본(9.6%)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독일(8.7%),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7.2%, 6.6%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의 1/3 수준으로 보고됨
- 이렇듯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2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월평균 소득이 직장인에 비해 낮고 코로나 이후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사업체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업종전환, 도약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함

※ 이 글은 '문한나·류기락·손규태·최광성·박상오(2023). 「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연구」.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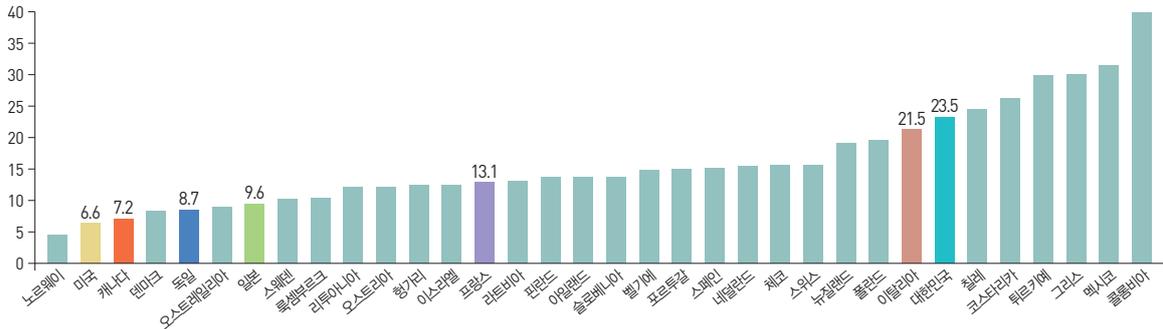


그림 1 | OECD(2024)의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

자료: OECD (2024), Self-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fb58715e-en (Accessed on 14 February 2024)

- 본 고에서는 자영업자의 도약(Scale-up)을 위한 훈련 과정 개발을 위해 자영업 존속 연수 및 직업훈련 참여 현황 파악, 훈련 수요 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분석 자료 및 방법: 「가동사업자 현황 데이터 및 자영업자 대면 인터뷰」

- 패널 데이터 분석: 자영업 현황 및 사업 존속 연수 파악을 위해 국세통계포털의 가동사업자 현황 데이터¹⁾ 분석
- 심층 인터뷰 및 키워드 분석: 문한나 외(2023)의 연구에서 실시한 자영업자 심층 인터뷰(9인)의 요약 자료에서 ChatGPT 3.5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한 후, 빈도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워드클라우드 생성

02 자영업자 직업훈련 현황 및 사업 존속 연수 분석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의지나 실제 참여도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임

- OECD ‘고용 전망 2019’ 보고서²⁾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직업훈련 참여도 격차는 28.7%p로, 조사 대상국 29개국 가운데 7번째로 격차가 크며 OECD 평균은 21.7%p임
 - 자영업자의 정규직 노동자 대비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임
- 자영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답변이 60.17%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OECD 평균(35.28%)의 2배에 이르는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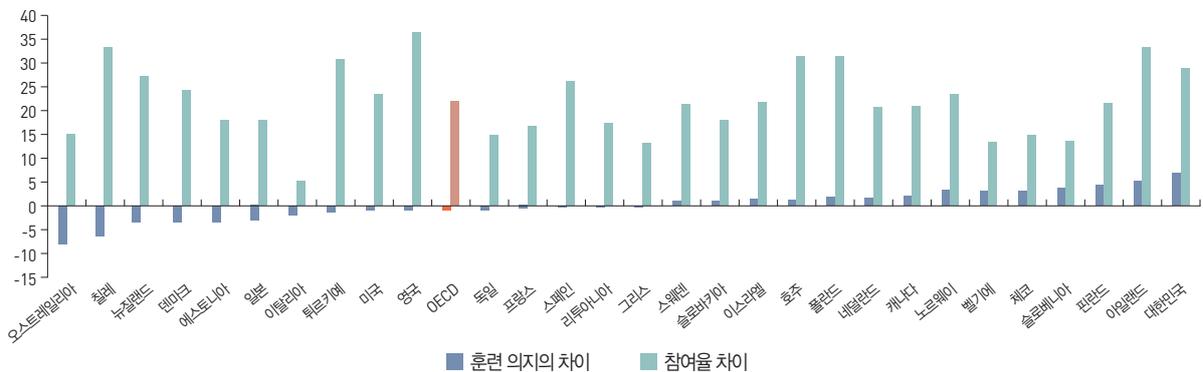


그림 2 | 국가별 자영업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직업훈련 참여 및 의지 차이

주: 직업훈련 참여도 및 훈련 의지의 백분율 차이: 정규직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를 뺀 값(16~65세)
 자료: OECD(2019),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1)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3&sttsMtaInfrId=2023010301202328286>
 2) OECD(2019).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 우리나라 가동사업자 중 자영업자는 87.1%이며,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의 10년 이상 사업 존속 연수는 30% 미만임

- ‘자영업자’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근로자’ 개념의 나머지 영역에 속하는 개념으로, 종속적 개념 없이 직업 활동을 하는 자들인데,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란 회사나 단체를 설립하지 않고 혼자, 가족 또는 5인 미만의 종사자로 운영하는 소규모의 사업자로 인식됨
- 2022년 기준 가동사업자는 9,667,375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1,252,033명, 12.9%), 일반사업자(5,049,323명, 52.18%), 간이사업자(2,083,097명, 21.53%), 면세사업자(1,292,922명, 13.36%)로 나타남
- 법인과 일반사업자는 5년 이상 존속 비율이 가장 높고(23.66%, 22.93%), 간이사업자는 10년 이상(19.47%), 면세사업자는 3년 이상(23.93%)이 가장 높았음
 - 10년 이상 사업을 존속한 가동사업자 평균은 27.62%, 사업자별로는 간이사업자(31.93%), 법인사업자(31.31%), 일반사업자(27.44%), 면세사업자(18.75%) 순으로 나타남³⁾

| 표 1 | 가동사업자의 사업 존속 연수

(단위: 명, %)

구분	총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전체	9,677,375	596,306	620,270	1,131,430	1,031,196	1,516,683	2,108,713	1,735,310	764,315	173,152
	100	6.16	6.41	11.69	10.66	15.67	21.79	17.93	7.90	1.79
법인사업자	1,252,033	63,440	72,271	137,048	119,743	183,751	296,275	240,323	110,000	29,182
	100	5.07	5.77	10.95	9.56	14.68	23.66	19.19	8.79	2.33
일반사업자	5,049,323	299,832	333,039	626,639	485,472	760,767	1,157,895	922,179	392,162	71,338
	100	5.94	6.6	12.41	9.61	15.07	22.93	18.26	7.77	1.41
간이사업자	2,083,097	182,420	158,018	256,962	192,333	262,768	365,383	405,637	200,742	58,834
	100	8.76	7.59	12.34	9.23	12.61	17.54	19.47	9.64	2.82
면세사업자	1,292,922	50,614	56,942	110,781	233,648	309,397	289,160	167,171	61,411	13,798
	100	3.91	4.40	8.57	18.07	23.93	22.36	12.93	4.75	1.07

자료: 국세통계포털 가동사업자 현황 II (2022년), <https://tasis.nts.go.kr>

| 지역별 일반사업자의 10년 이상 존속 비율은 서울, 대구, 경남 순으로 높으며, 세종, 제주, 부산 순으로 낮음

- 일반사업자의 사업 존속 연수를 3년 미만, 3~5년, 10년 이상으로 구분했을 때, 평균값은 3년 미만 34.56%, 3~5년 38.0%, 10년 이상 27.44%로 나타남
-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10년 이상 존속한 일반사업자 비율의 평균값을 초과한 지역은 서울(33.54%), 대구(31.91%), 경남(29.80), 울산(29.55%), 대전(28.55%) 5곳임
 - 이외 12개 지역은 10년 이상 존속한 일반사업자 비율이 평균보다 낮으며 그중 세종⁴⁾ 9.97%, 제주 19.23%, 부산 20.70%은 서울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3) 판매하는 품목의 면세여부에 따라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납부

4)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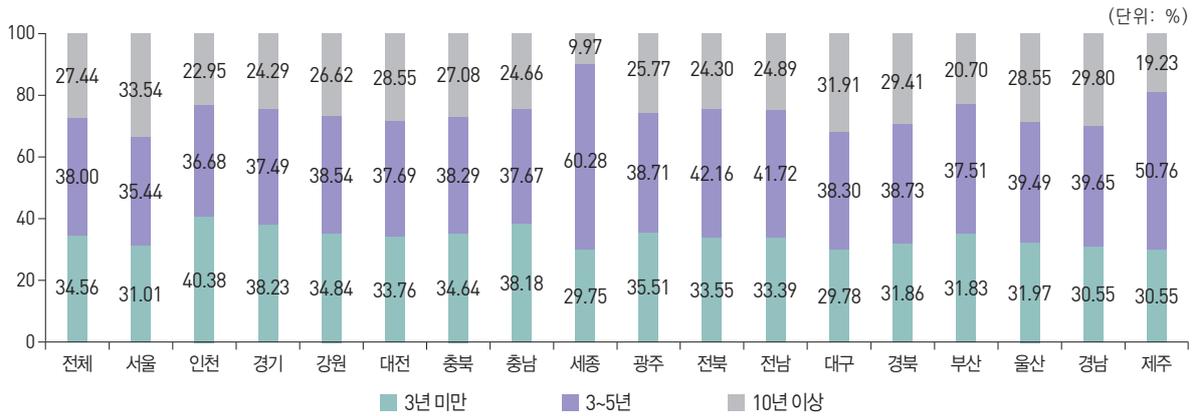


그림 3 | 지역별 일반사업자 사업 존속 연수 현황

자료: 국세통계포털 가동사업자 현황 II (2022년) 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 <https://tasis.nts.go.kr>

03 자영업자 훈련 수요 분석

자영업자의 훈련 수요는 세무관리 및 홍보·마케팅에 있었으며, 훈련이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

- 업종별 수요 분석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자영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훈련 수요를 파악함
 - 자영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세무관리 및 홍보·마케팅이지만, 업종별 특화된 훈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세금과 관련된 자영업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자영업자의 훈련은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훈련 과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음. 바우처 지급, 현물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훈련유형은 원데이 클래스와 같은 집체교육 및 대면 방문 교육을 선호함
 - 사업 도약(Scale Up) 단계에 따른 지원은 진입 단계 시 인테리어 및 상권 조사, 성장 단계 시 홍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자영업자 인터뷰 요약에서 추출된 주요 키워드는 세금 관련 프로그램, 마케팅 교육 등임

- 인터뷰 요약을 바탕으로 ChatGPT를 활용하여 키워드 50개를 추출하였음
- 5회 이상 추출된 주요 키워드는 세금 관련 프로그램, 마케팅 교육,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홍보 교육, 집체 훈련, 대기업 연계 프로그램,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임

04 시사점

- 우리나라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만큼 비중이 높지만, 이들은 낮은 소득, 각종 환경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의지가 낮고 기회가 적어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업종전환, 스케일 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함
 - 특히 세무관리나 홍보·마케팅과 관련한 훈련 과정 보급이 필요하며, 동시에 훈련이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함
- 자영업자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세밀한 제도와 정책 설계는 최근 강조되는 '역동 경제'를 구현하여 서민·중산층 시대를 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임